

제 목	<내 시간을 돌려줘! - 어린이날 퍼레이드>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청소년 등 관련 기자 분들
발 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일 자	2016년 5월 5일
문 의	메일: asunaro@asunaro.or.kr / 전화: 070-4228-1908 / 담당: 난다 010-9916-1461

[보도자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
<내 시간을 돌려줘! - 어린이날 퍼레이드>

-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입니다. 아수나로는 지난 1년여 동안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을 되찾기 위한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양의 학습시간과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시간 확충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의 취지를 살려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내 시간을 돌려줘! - 어린이날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정부 청사 앞에서 그동안 모은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에게 '학습시간줄이기' 운동을 알립니다.
- 퍼레이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 인증샷
오후 12시 30분	뚝방 퍼포먼스
오후 2시 50분	여의도공원 캠페인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인증샷

- 10시 30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시간 줄이기 운동 취지 및 경과 발표	: 공현
-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 학생 발언	: 이반
-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 탈학교 청소년 발언	: 밀루
- 학습시간 줄이기 지지 교사 발언	: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학습시간 줄이기 지지 노동자 발언	: 박정훈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청소년 참가자들

- 또한 아수나로는 퍼레이드 이후, 마지막으로 서명을 취합하여 5월 10일경 각 정당과 교육부 등에 학습시간줄이기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명참여자 31,456명) 아무쪼록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학습시간줄이기 운동 경과 보고]

- 2014년 8월 13일 서울·인천 학생 휴식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 2015년 1월 9일 대전 강제학습 실태조사 발표 및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 개시
- 2015년 2월 17일 학습시간 줄이기 '과잉학습 경고' 스티커 액션
- 2015년 5월 4일 '학습시간과 노동시간' 간담회
- 2015년 5월 5일 어린이날 퍼포먼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공부한다>
- 2015년 5월 18일 세계교육포럼 대응, 한국의 교육 현실 고발 거리전시회
~5월 21일
- 2015년 8월 26일 2015 대한민국 초중고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 2015년 10월 30일 <멈춰라 입시경쟁 풀려라 다크서클 공동행동>
~11월 12일 대치동 학원가 할로윈행진,
- 2016년 4월 12일 20대 총선, 학습시간줄이기 정책에 대한 각 정당 질의 결과 논평 발표
- 2016년 5월 1일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 서명자 3만명 돌파

※ 2016년 5월 3일 좋은교사운동 등의 단체가 <힘이 있는 교육> 캠페인 출범식을 여는 등, 9시 등교, 학원시간 규제 등 학습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 참여자들의 한마디]

<p>2002년생 대전시</p>	<p>저는 초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언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니와 놀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주말에만 가끔 언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졌습니다. 저희 언니처럼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도 가지지 못하는 언니 오빠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p>
<p>1999년생 광주시</p>	<p>아직 밝지 않은 아침에 집을 나가 어두워지는 밤에 들어오는 기분을 아시나요? 낮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제 친구를 경쟁자라고, 이겨야한다고 말하는 기분을 아시나요? 저희에게 친구를 남겨주세요.</p>
<p>2000년생 경기도</p>	<p>난 하고싶은 것도 많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것도 많은데, 내 중요한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략)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면 7교시 수업하고 야자하고 학교석식먹고 바로 학원가서 수업듣고 집에 오면 이제 씻고 잘 시간이에요. 학교숙제, 학원숙제 안해온다고 뭐라 그러는데 밤에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죠. 야자시간에는 종례 끝나고 청소하고 들어가면 30분 남아요. (학원때문에 9교시 야자는 안함)그 30분동안 학원숙제 한다고 해가는데 내 능력이 딸리는건지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 못해가는데 또 그거 가지고 학원에서 혼나고. (중략) 모든 사람들은 각자 스타일이 다른데 왜 다 똑같은 교육 시스템을 강요하죠? 몇시부터 몇시까지 학교 수업, 그 다음에는 야자, 또 그 다음은 학원, 끝나면 자지 말고 학교숙제에 학원숙제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왜 내 시간이 없어요? 왜? 나도 사람인데? 하고싶은거 있는데? 해야할것도 있는데? 왜 내거 다 버리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돌아야해요? 안되겠다 싶어서 내거 챙기려고 벗어나면 혼나요 왜? (하략)</p>
<p>1995년생 서울시</p>	<p>공부도 중요하지만 지치면 할 수 있는 공부도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기는커녕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남이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억압하지 마세요. 정말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 입장부터 듣는 게 어떠신지...</p>
<p>1988년생 경기도</p>	<p>저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나 특별하게 요구해야하다니</p>

<p>????년생 부산시</p>	<p>원치않은 방과후 학원으로 인해 취미생활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더불어 중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5시에시작해서 기본적으로 9시가넘게 끝나고 늦게 끝나면 10시가 넘어 거의11시가 되어 숙제를 하다보면 늦게 자게되어 학교에 지각하는경우가 많다. 더 심한 경우는 시험기간일 경우 기본 밤11시30이넘어 거의 밤12시이고 제일 늦게끝났던 적은 새벽1시30분이 넘어서 집을 보낸다. 이런 심한 공부로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집가기전 옥상에올라와 한숨을 쉬며 왜살까라는 생각을 하게만든다. 이런 방과후의 원치않은 학원생활은 창 없는 감옥생활과 같다는 생각이다. 학원들은 모두 금해야 한다 생각한다.</p>
<p>????년생 강원도</p>	<p>강제학습은 정말 규제해야 합니다... 아파도 참고 야자하라해요..가끔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건데 참고 야자하라니요... 저번엔 고삼인 저희언니 생일이었는데 고삼이 된 생일이야면서 야자를안빼줘서 같이 저녁도 못먹고 언니가 굉장히 우울해 했습니다 강제적학습은 진짜아니라고 봅니다</p>
<p>1998년생 광주시</p>	<p>진짜 쓸데없이 긴 시간이고 학교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것도 아니고 효율만 떨어질 뿐 하루종일 감옥살이 한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적게 있는것 보단 공부를 하겠지? 는 개뿔 자살하고 싶단 소리 달고 살고 공부를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조퇴할 수 있을까, 어떻게하면 안들키게 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하루를 보내고 야자 때 즐기나 멍하게 보내면 다른 애들을 공부를 했는데 난 못했다, 뒤쳐지는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만 들며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본수업도 안듣는데 방과후는 억지로 시켜서 뭐하냐 진짜 돈아깝고 쓸데없다는 생각만 했다. 울부모님 돈내고 듣는건데 내가 듣기 싫으면 신청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도 강제로 신청하게 했다. 쓸데없이 긴 학교 수업은 없애야 한다. 진짜 학교 다녀오면 내가 뭐하는건지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 안그래도 헬한민국 경쟁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무엇보다도 하루의 절반이상을 갇혀서, 화장실도 허락말고 가야한다는 자유란 자유는 빼앗긴 채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p>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한다!

“저의 바람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방과후의 시간을, 방학 동안의 시간을 당연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최우주의 말이다. 한 편의 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때로부터 21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는 길어도 너무 긴 학습시간을 줄이고,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등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을 바꾸고, 성적과 입시압박에 시달려야만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난 2014년 말부터 <학습시간 줄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캠페인은 올해까지 이어졌고 학생, 청소년,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명에 참여한 31,456명의 목소리를 모아 이 사회에 전달한다.

우리는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폭주하는 학습시간을 사회적으로 규제할 것을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듯이, 적절한 학습시간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만들고 학생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쉼 권리, 놀 권리, 행복추구권,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학습과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다. 역사적으로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어린 사람도 존엄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이 담긴 것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에서는 행사가 열리고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걸치레 행사보다는 어린이날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학습시간을 줄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안을 발표한다. 제20대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습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9시 등교, 3시 하교! ‘하루 6시간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행하라!
2. 방학일수를 늘리고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여라!
3. 보충, 야자, 학원 등 강제 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라!
4. 야간, 주말, 휴일엔 학생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라!
5. 과잉학습으로 밀어 넣는 경쟁교육 개혁하라!

2016년 5월 5일

“내 시간을 돌려줘!”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